

진안에서 농촌유학을 맛보다

✎ 정도영 기자 | ⓒ 승인 2024.10.18 22:06

진안교육지원청, 2024 농촌유학 2차 맛보기 캠프 개최
전국 각지에서 18가정 60명의 인원, 진안 방문 및 농촌유학 체험
농촌유학 선배에게 듣는 농촌유학 이야기



캠프 2일차인 18일, 마이산북부 산약초타운 2층 회의실에서 차담회가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송승용, 이하 진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간 진안군 일원에서 '2024 농촌유학 2차 맛보기 캠프'를 개최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18가정 60명의 인원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농촌유학 운영학교 발굴과 관심 과정에 농촌유학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와 농촌이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는 농촌유학을 교육귀촌으로 연결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17일 첫째 날, 정천면 진안고원 치유숲에 모인 참여자들은 전북형 농촌유학 캠프 오리엔테이션과 치유 프로그램들을 체험했고, △둘째 날인 18일, 학생들은 농촌유학 맛보기 캠프 신청학교에서 1일 수업 참여를, 부모들은 학교 및 거주시설 탐방과 교육귀촌 및 농촌유학 학부모 면담, 부모살이 상담 등을 진행했다.

또한 캠프에 참여한 가정들은 사전에 관내 농촌유학 운영 및 관심학교 4개교(조림초, 백운초, 동향초, 오천초)의 홍보영상과 활동 자료 등을 통해 직접 학교를 선택했다.

둘째 날인 18일, 마지막 순서로 농촌유학살이 차담회가 함께 열렸다.

이날 차담회에는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과 진안군청 가족행복과 김민성 팀장,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김진주 센터장, 진안군일자리지원센터 최영규 센터장, 농촌유학 및 귀촌 학부모인 백운초등학교 김미현 학부모, 오천초등학교 엄영란 학부모, 조림초등학교 문정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생생한 농촌유학과 귀촌살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자연 속에서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키우는데 농촌유학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거주지를 옮기는 중요한 문제이다보니 선뜻 결정을 못했는데, 전학 오면 함께 생활할 친구들과 선생님도 만나고 주변 선배 부모님과 만나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한다"라고 밝혔다.



조림초에서 고구마수확 체험을 진행했다.

◆농촌유학 어떻게 좋았어?

차담회에서는 먼저 농촌유학을 통해 진안으로 유입된 학부모들이 맛보기 캠프에 참여한 부모들에게 농촌유학에 대한 자신들의 생생한 경험과 조언을 해주고 궁금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질의응답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먼저 지난 9월에 백운면으로 농촌유학을 온 백운초등학교 김미현 학부모는 '진안이 좋은 10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학부모들에게 조언을 전달했다.

김미현 학부모는 "아직 진안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진안이 좋은 이유 10가지를 말씀드리겠다"라며 "첫 번째는 북쪽에는 개마고원, 남쪽에는 진안고원이 있다. 이 고원이라는 이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다. 두 번째로는 마이산의 고장이라는 것. 아이들은 마이산의 정기를 받으

며 생활할 수 있고, 특히 탐사나 마이산의 역고드름과 같은 신비로운 자연현상은 작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리적인 위치가 좋다. 전주와도 가깝고 인근 지역에 체험하고 즐길 거리가 많아 아이들과 주말마다 어디를 갈지 리스트를 써놓고 고민하는 정도"라며 "또, 생각보다 진안읍에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이소, 롯데리아, 파리바게뜨, 코인 노래방,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라탕 등 있을 것은 다 있으며, 아이들 사교육을 위한 학원, 소아과는 없지만 가정의학과, 의료원의 응급실 등 갖출 것들은 대부분 갖춰져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더라"라고 덧붙였다.

김 학부모는 "그리고 무엇보다 각종 시설들을 저렴한 가격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설 운동장과 같이 큰 체육시설은 도시지역에서 이용하려면 많이 까다로운데, 진안은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고 상시 개방이 되어 있다. 또, 아이들 수영장의 경우 한 달의 3만원에 수영강습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자부담 비용은 들지만 용담의 승마 등 엄마와 아이가 노력한다면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다"라며 "하지만 좋은 만큼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는데, 주거시설이 예이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면 지역에서도 차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 마을 안에도 있지 않다. 그래서 그 집 때문에 진안에 오냐 마냐를 굉장히 결정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진안에서 생활하는 것을 정말 만족했고,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농촌유학을 결심했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오천초등학교의 엄영란 학부모는 '지역과 함께 키운다'라는 주제로 사춘기 시기의 아이에게 농촌이 가져다주는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엄영란 학부모는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며 사춘기를 겪고 있다. 그리고 언제는 아빠와 싸워 집을 나갔는데, 제 핸드폰으로 지인에게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전부다 전화가 오더라. 그래서 저는 애 좀 잡아서 이야기좀 들으면서 위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지금은 잘 해결됐다"라며 "저도 부모가 처음이고 주변 지인들에게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다. 또, 학교의 돌봄 프로그램을 활용해 낮에는 아이들과 잘 떨어져 있다가 저녁에 만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사람도 적기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도 있어서 주변 친구들에게는 꼭 진안으로 혹은 농촌지역으로 귀촌이나 농촌유학을 오라고 권유해주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림초등학교 문정일 학부모는 농촌 지역 커뮤니티 속 젊은 사람들의 역할과 현재 아이들이 다니고있는 조림초등학교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문정일 학부모는 "조림초등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아토피안심학교로 아이들의 급식이 매우 건강하다. 친환경 재료로 아이들의 급식이 맞춤으로 제공된다"라며 "또,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하천변을 쫓 따라서 가야 하는데,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함께 자라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 또, 정천면에는 둥구나무센터와 같은 마을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기능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다. 귀촌하신 많은 분들이 재능나눔도 하시고, 또, 이곳에서는 저희들도 젊은이의 역할이 돼서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나누고, 배울수 있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진안교육지원청 송승용 교육장은 "농촌유학을 올려고 하는 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는 바로 결단력과 아이들 키우는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다"라며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시골지역에서의 추억과 경험들을 내 아이한테도 반드시 경험시켜 주고 싶다는 신념과 철학, 누구의 어떤 강요보다도 우리 학부모님들이 중심을 잡으셔야 된다. 농촌유학에는 장단점이 다 있다. 정말로 농촌유학을 희망한다면 단점보다는 큰 장점에 대한 메리트를 안고 오시는 것을 당부드린다. 부모로서 '나는 우리 아이를 여기서 잘 키우겠다'라는 그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이곳 진안에 오신다면 아마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안의 농촌유학은?

한편 진안농촌유학은 조림초등학교(14가정, 32명), 백운초등학교(1가정, 1명)에서 아토피안심학교, 진로교육 등 특화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역활동 참여로 시골살이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다. 2022년부터 참여한 농촌유학 가정은 현재까지 농촌유학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진학을 위해 농촌유학을 종료한 1가정도 전북도 내로 이주했고, 주목할 점은 작년에 농촌유학을 온 가정 중 한 가정이 진안 정천면에 주택을 구입하여 정착하면서 교육귀촌으로 연결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 것.

또한 조림초등학교는 전교생의 65%가 농촌유학생으로, 농촌유학이 지역의 생활인구를 늘리고 작은학교를 살리는 하나의 대안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보가 농촌유학생 유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진안교육지원청은 진안군청과 함께 주거시설 발굴에 적극 협력하여 캠프 참여 가족들이 주거시설을 둘러 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더불어 부귀면 18세대의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거주시설 설립이 2025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정도영 기자 dokk0519@naver.com

저작권자 © 진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